글 김규나 임유이 그림

성장소설

최초의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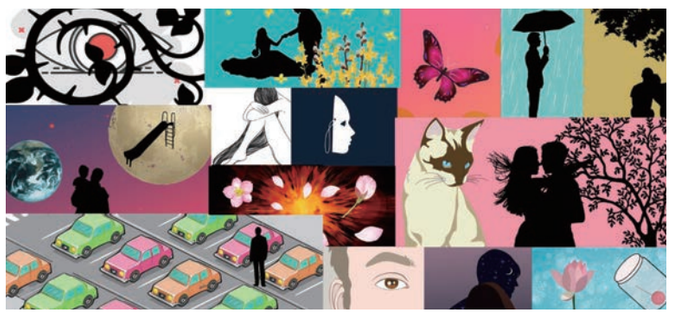
연재소설을 마치며

아주 먼 옛날, 최초의 '당신'이 있었다. 당신은 혼자인 것이 싫어 또 다른 '당신'을 원했다. 당신은 당신을 만나 사랑하고 새로운 당신을 낳았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수많은 당신과 당신들로 가득 찼다. 각각의 당신은 저마다 달랐다. 당신은 하루 종일 해변에서 조개를 주웠다.

어떤 당신은 까치발을 들어 붉게 익은 사과를 따고, 풀숲을 헤쳐 새가 갓 낳은 알을 주웠다. 또 다른 당신은 산과 벌판을 달려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 사냥했다. 강물을 헤엄치거나 바다에 뗏목을 띄워 물고기를 낚는 당신도 있었다.

당신은 집 짓는 법을 배우고 가축을 기르고 봄엔 씨앗을 뿌렸다. 가을에 거둬들인 밀을 빻고 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구울 줄도 알았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는 겨울이 와도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힘껏 손을 흔들며 이제 막 시작되는 하루를 반겨 맞았다. 당신이란 언제나 힘차고 용감하고 씩씩한 것 같았다.



머나먼 옛날, 최초의 '나'가 있었다. 나는 외로운 것이 싫어 또 다른 '나'를 원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새로운 나를 낳았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수많은 나와 나로 가득했다. 저마다의 나는 각각 달랐다. 나는 온종일 시냇가에 앉아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어떤 나는 산에 올라 야아호, 소리치고는 야아호 야하오, 반갑게 맞아 주는 메아리를 기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동굴 벽 가득 검은 숯으로 그림을 그리고, 동그랗게 입술을 말아 휘파람을 불며 아에우이오, 서로 다른 소리를 만들어 노래도 불렀다.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 볼을 어루만지는 바람의 입김이 간지러워서 깔깔 웃기도 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 태양을 마주 보고 선 나는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처음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보았다. 발뒤꿈치에서 자라난 그림자는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왔다. 함박눈이 그친 어느 겨울밤, 모닥불 앞에 앉아 있던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사나운 멧돼지를 사냥하여 의기양양 돌아왔던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훔쳐본 뒤였다. 찢어진 살에서 흐르는 피를 씻어 내며 당신은 혼자 흐느끼고 있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처럼 씩씩해 보이기만 하던 당신조차 가끔은 홀로 숨어 운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별과 별 사이, 당신의 눈물이 은하수가 되어 나의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하늘뿐 아니라 땅 위에도 수많은 별이 있음을 알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건, 아무도 본 적 없는 당신의 눈물이었다. 나와 닮은 당신, 모닥불이 흔들릴 때마다 따로따로 흔들리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면 이따금 하나로 합쳐지던 당신과 나의 그림자, 그제야 내가 당신인 줄 알았다. 비로소 당신이 나의 진정한 그림자, 또 다른 나임을 알았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나는 쓰고, 길과 길의 교차로에서 당신은 읽는다. 그리고 오늘, 무한한 시간과 시간의 좁은 모퉁이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혜성처럼,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당신과 내가 만났다. 글자와 문장과 여백 속에서 하나의 영혼으로 결합하는 아름다운 마법의 순간. 위안과 희망과 사랑이 바로 이 시간, 여기에 있다. 나와 함께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쌍꺼풀 역사… 뮤지컬로 만나다

정동극장 '아이참' 공연

1930년대 미용사 오엽주 소재
당시에는 '경성 괴물' 손가락질
모델 장윤주 뮤지컬 주연 데뷔
"무대연기 도전 새로운 나 발견"

모델 겸 배우 장윤주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창작 뮤지컬 '아이참' 언론공개회에서 공연 일부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꺼풀 수술하러 왔어요."

모델처럼 당당한 '워킹'으로 무대에 등장한 현석주(장윤주 분)가 흰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 말한다. 의사는 한국에서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수술을 정말 하겠느냐고 계속 되묻고 현석주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렇게 해서 국내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한 사람이 탄생한다.

국립정동극장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아이참'은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미용사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간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전기 파마를 도입한 미용사 오엽주의 삶을 소재로 했다.

'아이참'(eye charm)은 쌍꺼풀을 만드는 테이프를 일컫는 말로 여성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꾸민다는 의미를 담았다. '매력(charm)이 있는 눈', '매력 있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도 담았다.

3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언론에 일부 공개한 공연에서는 제목대로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는 행동을 소재로 한 노래와 춤이 펼쳐졌다. 넘버 '그녀의 손길' '머리 감기' '긴 머리' 등에 맞춰 미용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들의 머리가 휙휙 바뀐다. 현석주가 연 미용실이 주된 배경이다. 배우들은 이러한 장면을 위해 미용 기술을 연습했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에게 자신을 꾸미는 행위는 쉽지 않았다. 댕기 머리를 자르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엄마가 쫓아오고 기자들은 현석주의 미용실을 '문란한 미용실'이자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곳'이라고 낙인찍는다. 사람들은 국내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한 현석주를 '경성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겠다고 노래한다. 현석주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다. 기자들의 촬영에 포즈를 취하고 취재 온 기자들을 새롭게 꾸며 그들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찾아 준다.

그렇다고 단발 등 당시에는 새로웠던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현석주는 딸을 쫓아온 엄마에게 쪽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하다.

제작진은 현석주의 등장으로 다채로워지는 무대를 표현하기 위해 의상과 무대 등을 1930년대 스타일에 한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레트로 퓨처리즘'(retro futurism)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콘셉트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주인공 현석주 역은 뮤지컬 '렛미플라이'·'마틸다'·'펀 홈' 등에 출연한 배우 방진의와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맡았다. 장윤주는 뮤지컬에 처음 도전했다.

장윤주는 "20년 넘게 패션쇼를 찢었던 사람으로서 무대가 그리웠다"며 "연기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보니 '무대에서 연기하면 내가 조금 달라질까'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공연은 29일까지 국립정동극장 무대에 오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연말연시에 볼만한 '콘서트'

1990년대 춤꾼 '현진영' 단독 콘서트… 서울 디앤지홀서
내년 2월 日 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 첫 단독 내한 공연

가수 현진영이 7일 서울 디앤지홀에서 단독 콘서트 '현진영의 재즈 라이브&문나이트 파티'를 연다고 오언니컴퍼니가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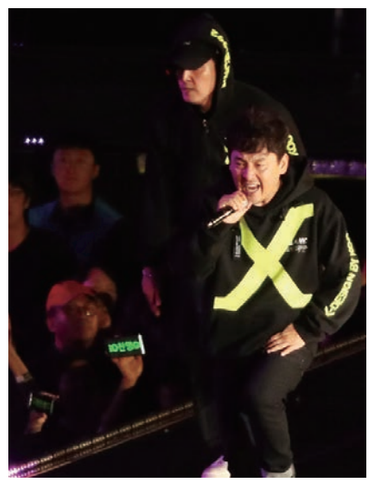
1990년대 춤꾼으로 이름을 날린 현진영은 이번 콘서트에서는 색다른 재즈 무대를 선보인다. 또 가수 왁스와 신해솔을 비롯해 팝핀현준·배장은과 슈퍼밴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주최 측은 "전설적인 춤꾼들을 배출한 댄서의 성지 '문나이트'의 이름을 딴 이번 공연에서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질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일본 인기 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Mrs. GREEN APPLE)이 내년 2월 15·16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첫 단독 내한 콘서트를 연다고 공연기획사 리벳이 밝혔다.

2013년 그룹을 결성한 미세스 그린 애플은 2015년 미니음반 '버라이어티'(Variety)로 데뷔한 3인조 밴드다. 오모리 모토키(보컬·기타)·와카이 히로토(기타)·후지사와 료카(키보드)로 구성됐다.

이들은 '댄스 홀'(Dance Hall)·'인페르노'(Inferno)·'아오 토 나츠'(Ao To Natsu)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일본은 물론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현진영(왼쪽) 가수가 7일 서울 디앤지홀에서 단독 콘서트 '현진영의 재즈 라이브&문나이트 파티'를 연다. 오언니컴퍼니